**교제와 나눔**

**\*\*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\*\***

**ㆍ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.**

**ㆍJC캠프:**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.

**ㆍ연합 성금요기도회 난민 위한 헌금:** 955,12유로

**ㆍ세례자 교육:** 오늘 제 2강-인간, 2부 예배 및 오찬 후, 사랑방

**ㆍ매일성경 5,6월호:** 배부-김성희 사모

**ㆍ말씀일기 발표자:** 원고를 홈피에 직접 올리거나, 손목사에게 보내 주세요.

**ㆍ예장유럽선교대회:** 4월18일(화)~21일(금) Dessau-Roßlau(손교훈 목사 참석)

 다음 주일에는 허준 목사님(부산 다일교회 담임)께서 설교하십니다.

**ㆍ생일:** 정규선, 김하은 박성준, 박성희, 이윤석, 신재혁

**ㆍ세월호 미수습자 가족후원 특별헌금:** 기도와 사랑으로 동참해 주세요.

미수습자: 단원고 2학년 조은화, 허다윤, 남현철, 박영인 학생,

단원고 교사 고창석, 양승진님, 이영숙님, 권재근/권혁규 부자

**◆ 말씀일기 일정**

일/요20:1-10 월/요20:11-23 화/요20:24-31 수/요21:1-14

목/요21:15-25 금/시79:1-13 토/시80:1-19 일/시81:1-16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&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35독, 무명)**

**◈예배위원 안내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4월 16일** | **4월 23일** | **4월 30일** | **5월 7일** |
| **예배기도** | 김한진 | 나지홍 | 단주현 | 석호선 |
| **말씀일기** | 손교훈 | 정수연 | 채정현 | 교사 중 |
| **안내위원** | 예배부, 신형만 |
| **헌금위원** | 예배부, 김좌겸 |
| **애찬봉사** | 다함께 | 밥상 다섯 | 밥상 여섯 | 밥상 일곱 |

34-16호 2017년 4월 16일

 

**“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"**(롬1:17)

**담임목사/ 손교훈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협동목사/ 이광열** Mike Lee

☏ 0211-4166 3284 HP. 0157-7388 7498

**교육목사/ 이재용** HP. 0157-5346 6942

주일 1부 예배: 12:15

주일 2부 예배: 14:00

주일 유초등부 예배: 14:00

주일 청소년부 예배: 14:00

금요기도회: 20:00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

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

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**교회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**

 **부 활 주 일 예 배**(Ostersonntag)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/Eingang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송영/Eingangs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찬양대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65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….. 교독문 133번………………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......………… 161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 | 김한진 장로 |
| 말씀일기/Bibeltagebuch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…............. 마태 28:1-15 …..….....…........ | 손교훈 목사다 함 께 |
| 찬양/Loblied 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 부활절 칸타타……………….......... | 찬 양 대 |
| 설교/Predigt …………………. **부활, 새 세상의 시작** ….………… | 손교훈 목사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......………………… 167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성찬식/Abendmahl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집례봉헌/Kollekte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 함 께인도자인 도 자 |
|  교제와나눔/Bekanntmachung……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 함 께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
**※는 함께 일어섭니다.**

**◈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-요19장  '끝이 아니다' ◈**

어리석은 무리들은 악한 자들의 꾀임에 동요되어 죄 없는 이를 십자가로 내몰았다. 빌라도 총독은 무리들의 요구가 부당함을 알면서도,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넘겨 주었다. 아우성치는 무리들도, 총독의 권력도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지만, 실상 그 힘은 그저 죄 없는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하는 힘이었다.

그래서인가,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특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허무하거나 슬프게만 묘사하고 있질 않다. 골고다 언덕에서는 오히려 세상 권력의 허무한 힘에 반하여,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신 아들 예수의 “영광”(요17장에 거듭 반복된 단어)이 나타나고 있고,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가 더욱 힘있게 드러나고 있다.

예수께서는 고통스런 죽음 가운데서도 곁에 서 있는 어머니와 여인들,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애정의 말씀을 남기신다. “보소서, 아들이니이다… 보라, 네 어머니라”(26-27). 그렇다. 죽음은 끝이 아니다.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지(30)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. 주님께서 구원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감당할 모든 고통과 짐을 다 당하셨다는 뜻이지 허무하게 세상 권력에 짓밟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.

어머니는 새로운 아들을 얻을 것이고, 아들은 새 어머니를 얻게 될 것이다. 수 많은 어머니들과 아들들이 함께 이루는 큰 가정이 굳건히 세워져 갈 것이다.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, 영적인 가족들이 새 가정을 이루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게 될 것이다.

불의한 세상은 끊임없이 죽이려 들지만, 생명의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신다. 타이틀 가진 제자들이 두려움에 숨어 버린다 해도, 숨어 있던 제자들, “아리마대 요셉”과 “니고데모”가 이 세상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(38-39).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, 주저 앉은 자가 일어나고, 죽은 자가 살아난다.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 세상의 시작이다.

**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곳 ◈**

▶스펙트럼 교회(이광열 목사)

▶'겨자씨' 모임(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)

▶NRW 평신도연합회

▶유럽 기독교교육원: 어린이 연합 캠프, 청소년 연합 캠프(JC)

▶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(이명선 총무)

▶유럽 코스타(청년수련회) ▶유럽 크리스찬 신문(이창배 목사)

▶예장 유럽선교회 ▶우크라이나 임현영 선교사

▶장학 지원 ▶북한 선교 ▶디아코니 협력 후원

▶굶주린 이웃 돕기 (케냐 총게노 고아원, 이은용 선교사)

▶기타 구제 사업 ▶선교관 기금 마련

**◈절기 및 설교 본문 예고 ◈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4월 16일** | 부활주일, 연합예배, 성찬식 마 28:1-15 |
| **4월 23일** | 부활절 후 첫 주일, 설교: 허준 목사  |
| **4월 30일** | 부활절 후 둘째 주일 마 18:1-14 |
| **5월 7일** | 어린이 주일, 연합예배 설교: 이재용 목사 |